쉼 터

다음 세대에게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이 동 호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지난 6월 13일 저녁, 월드컵 응원이 예정된 대구의 범어네거리를 구경삼아 나가 보았더니, 학기말 시험 때문인지 대학생보다 중고생들이 더 많아 보였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부모 손을 잡고 모여 들어 광장을 가득 메운 그 분위기는 가관이었다. 승리를 비는 애국적(?) 표현을 넘어서 정열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요사이 젊은 세대들의 장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보기 민망한 옷차림이나 이해 못할 헤프닝, 정리 없는 끝맺음 등은 젊음 만이 할 수 있는 애교로 하루쯤은 봐 주자.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가진 큰 자원인 젊은이들의 정열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면에도 이용하거나 또는 미래를 위해 절약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꿈꾸어 보았다.

60년대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으로 개발도상국의 위치는 벗어났다고 하여도 아직은 선진국에 다다르지는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아 조금이라도 절약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내세우면 구세대라는 지적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요사이의 현실이 되고 말아 많이 아쉽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경제 규모상 높은 국제유가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최근에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차라리 늘 절약하자는 정부홍보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후세에게서 빌려 쓰고 있으니, 보다 좋게 잘 사용하고 가꾸어 좋은 환경의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환경보호 캠페인이 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의 지구 뿐 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절약으로 보다 여유 있게 된 자원, 또한 가시적인 경제력과 민족 자긍심, 건전한 육체와 정신 등의 무형 자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인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건물 출입문의 카드개폐장치를 큰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번거러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따라서 24시간 건물이 개방된 상태에서 복도, 계단, 화장실의 전등이 하루 종일 늘 켜져 있는 현실이다. 이게 안쓰러워, 나 홀로 화장실 소등을 시작한 지 수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나의 하루 일과는 연구실 맞은편의 화장실 소등으로 시작된다. 전등 하나를 끄는 일이 무슨 큰 대수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해도 아무리 작더라도 무엇이든지 절약한 만큼 남아 다른 사람 또는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어 작은 절약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나 개인 고집의 발로로 시작한 일이다.

어차피 쩨쩨한 얘기를 시작하였으니, 이제 학회와 관련된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학회 일을 맡았을 때에 관련 모 학회에서 학교가 아닌 외부 시설을 임대하여 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 후의 본 학회 총회에서 모 원로회원님께서 발표회 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에, 한두 번 초기의 외부 행사는 가능하겠으나 해가 거듭 될수록 일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다음 일을 맡을 사람을 위해 나의 임기 동안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회원수와 논문 발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개최에 필요한 장소와 공간을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외부 장소를 임대하여 학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여러 학회 운영의 주된 흐름이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학회 개최 일을 방학 기간으로 바꾸려고 의견을 수집하였더니, 방학 중에는 외국에 나가는 일이 빈번하니 발표회 일자를 변경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저런 배경으로 본 학회도 궁여지책으로 외부 장소를 빌려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다. 발표회 개최 시기만 변경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학회 운영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문제가 우리들의 지성과 판단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남겨 주기 위하여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 올 다음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 주는 것이 그에게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 세대가 해야만 할 일이라고 믿지만, 이는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을 쓰면서 나도 이제는 설익은 노인네가 다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니, 총명한 여러 회원께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맘이 크다.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가 한번쯤은 하잖아 보이는 일을 빡빡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혹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